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등잔불 아래 쓴 편지... 피어나는 우정

추사의 이 편지에는 '호의 초의 연조(誦師 草師 聯照)'라는 구절이 있다. 바로 호의와 초의 두 스님에게 보낸 편지인데, '연조(聯照)'란 나란히 살펴보라는 뜻이다.

실제 이 편지를 어느 해에 보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편지의 내용 중에 '상원(上元)'이라는 말이 보인다. 상원은 바로 정월 대보름날을 의미한다. 이런 단서를 통해 이 편지는 정월 대보름날에 보낸 것임은 분명한데, 어느 해에 보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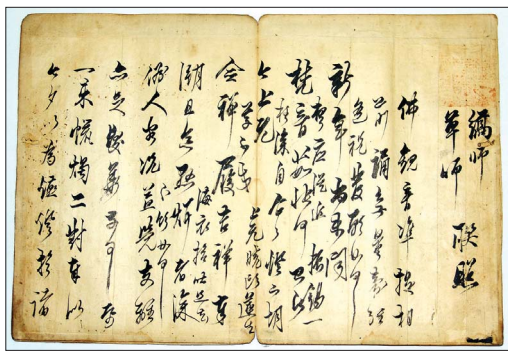
특히 추사는 새해를 맞아 이미 보름이 흘러갔지만 얼마동안 초의와 호의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듯하다. 추사는 이들의 소식이 궁금해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직 스님들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허탈'하다고. 그러기에 이런 마음이 '어찌 사라지겠느냐'라고 반문하였으니 멀리서 벗을 그리는 정이 오롯이 드러난다.

그가 '수행이 길하고 상서로운지 공급하고 또 염려가 된다'는 말의 진정성은 지기(知己)와 나누는 살가운 인정이다. 아마 이 편지는 추사가 제주 유배 시절이나 아니면 북청에 있을 때 보낸 편지라 추정된다. 자신의 처지를 '속인의 객지 상황은 더욱 따분하고 지루한데, 또 시간만 늘어지니'라고 말한 대목은 이러한 사실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럼 추사가 호의와 초의에게 보낸 편지의 사연을 살펴보자.

호의스님과 초의스님, 나란히 보세요.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직 스님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프고, 허탈한 마음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정월 대보름인데 (두 스님



추사의 친필 편지

정월 보름 발원 위해 밀랍초 공양

추사가 원한 것 '도반과 차담'

들은)모두 수행이 길하고 상서로운지 공급하고 또 염려됩니다. 편인지 않은 것에 매달린 것이 더욱 심하여 속인의 객지 상황은 더욱 따분하고 지루한데, 또 시간만 늘어지니 어찌 하겠습니까. 종이 1속과 밀랍초 2대를 보냅니다.

오늘 저녁 모든 부처와 관세음보살, 준제보살 상전(相前: 불전)에 불을 켜시고, 무량수경을 읊어 멀리(있는 나를 위해) 발원을 축원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각건대 응당 가까운 날에 지팡이를 짚고 한번 왕림하시기를 더욱 깊이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등잔불 아래서 어지럽게 날려 썼습니다. 이만. 정월 대 보름날 새벽에 연생(蓮生). 김 10뜻을 보내니 나누어 수령하심이 어떨지요

(誦師 草師 聯照 新年尙未聞梵音 茹 何已 卽今 上元僉禪履吉祥 奉瀾且念 懸耿者深 俗人客況 益覺 支離亦足髮華 奈何 紙一束蠟燭二對奉 似今夕以

爲燃燈於諸佛觀音準提相前 誦無量壽經 遙祝發願 如何 想應從近振錫一枉 深自企企 燈下胡草 不式 上元曉頭 蓮生 海衣十吐 送去 分韻如何)

추사는 두 스님들에게 김과 밀랍초를 보낸다. 밀랍초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인 듯하다. 그가 밀랍초 공양물을 보내면서 '오늘 저녁 모든 부처와 관세음보살, 준제보살 상전(相前: 불전)에 불을 켜시고' 예불할 때마다 '무량수경을 읊어 멀리(있는 나를 위해) 발원을 축원해' 달란다.

이러한 발원의 목적은 바로 '편안치 않은 것에 매달린 것이 더욱 심하여 속인의 객지 상황은 더욱 따분하고 지루한데, 또 시간만 늘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 전에 발원을 원했던 것이다. 이 편지를 받았던 두 스님이 실제 어떤 발원과 축원을 모든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준제보살에게 올렸을까. 추사가 1840년 제주로 유배된 후, 그를 아꼈던 이들의 발원은 실제 대광명전을 신축하게 된 이유였다. 이는 추사를 위한 축원발원이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선 후기 종이를 세는 수양사(數量詞)는 속(束)이며, 밀랍으로 만든 초는 대(對)로 표기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무엇보다 추사의 바람은 축원발원도 중요하지만 뜻이 통하는 벗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은근한 만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유되어 야할 정서이기에 더욱 그렇다. '등불 아래서 어지럽게 날려 쓴' 이 편지는 그러기에 이들의 따뜻한 우정이 더욱 돋보이는지도 모른다.



박동준(중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만해 정신을 배우세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장 ·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

어린 시절 나는 제법 애숙한 아이였다. 어떤 일에 골몰히 생각하고 따져 묻기를 좋아했다. 나의 이런 경향은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불교와 가까이 지내 자주 스님들이 오셨다. 자연적으로 <반야심경>을 접했고,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는 뜻을 몰랐지만 달달 외을 수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해 <반야심경>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책을 사봤지만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당시 나는 강릉포교원 학생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그곳에는 설악산과 오대산으로 가기 위해 하루 기거하는 객승들이 있었다. 나는 왕왕 스님들에게 경전 해석과 교리에 대해 질문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해 못하고서는 스님들에게 '잘 설명을 못 한다'면서 한껏 부애를 부렸다. 그래서 설악산과 오대산 스님들에게 나는 강릉에 따져 묻기 좋아하는 알뜰한 아이로 유명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을 만났고, 스님은 대번 나에게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을 건넸다.

"네가 스님들이 설명하는 경전 해석을 이해나 하겠는가. 이 책을 보면서 먼저 소양부터 쌓아라."

집에 가 시집을 펼쳤다. '님은 갔습니다.' 첫 소절부터 내 머리를 쳤다. 온 우주가가 안에 있었다. 이내 궁금해졌다. '대체 만해 스님은 누구인가?'

하지만 외로웠다. 심우장에 자료관을 만들었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고, 누구도 찾지 않았다.

"열심히 사업을 하는 데 돌아보니 나 혼자하고 있더군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해 스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피고 남한산성을 연 250만 명이 찾더군요. 그래서 심우장의 만해 스님 자료관을 남한산성으로 이전키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전한 이후 심우장을 국가가 매입하게 하고 서울시 사적 7호 지정받게 했습니다."

자료관을 남한산성으로 이전키로 한 결정적 계기도 있었다. 독립기념관은 1985년 개관 이후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전 회장은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가 한명 한명의 특별전을 제안했고 첫 특별전으로 만해 스님이 선정됐다. 열기는 뜨거웠다. 한 달동안 진행하려 했던 전시는 3개월로 연장됐다. '만해 기념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이때부터다.

1990년 심우장에서 남한산성으로 자리를 옮긴 자료관은 1997년 최종 완공돼 기념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1995년에는 백담사에 만해기념관이 개관했고, 2006년 만해 스님 고향인 흥성에 만해

강릉포교원 학생회 활동 중

'님의 침묵' 접하고 '만해 앞이'

대ભ론 활동하며 운동 본격화

전국 다니며 관련 자료 수집

백담사·홍성 등 만해 기념관

설립·콘텐츠 제작 등에 공로

심우장 사적 지정 결정적 역할

만해 스님서 문학은 현상일 뿐

'님의 침묵', 화엄 세계를 노래

진면목은 불교에 있음을 '주목'

문학체験관이 문을 열었다. 전국에 세 곳에 있는 기념관에는 모두 전 회장이 제공한 자료와 콘텐츠들이 담겨 있다.

한 사람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난하고 방대한 작업이었다. 이로 소진된 재화와 시간도 엄청났다. 하지만 전 회장은 열정이 있으면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모두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지요. 저는 40세까지 술을 한 모금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담배는 지금까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니다. 그 시간에 스님을 찾아다니며 만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 먹음 등으로 자료를 사 모았습니다. 석주 스님이 준 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제가 발품을 팔아 구매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님의 침묵> 초간본의 경우에는 소장자를 1년 동안 찾아가 어렵사리 구할 수 있었습니니다."

아직도 만해를 모르는 세상

세상은 변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도 올해로 17년이 됐고, 중학생은 초로의 신사가 됐다. 그렇지만 만해 스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박하다고 전 회장은 생각한다. 불교계부터도 만해 스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게 전 회장의 주장이다.

전 회장이 선양 사업을 하면서 힘든 것은 금전적인 부분보다 만해 스님에 대한 오해였다. 멀게는 대ભ론 시절 <만해 선사- 그 오지를 지표로 삼자>는 홍보 책자에서 '선사'라는 호칭을 문체 삼아 젊은 스님들이 자신을 겸박한 일부부터 근간에는 '박한영 스님이 만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해 앞이'

따져 묻기를 좋아했고 만해 스님이 화두였던 중학생은 평생을 만해 스님을 선양하고 연구하는 데 바친다. 바로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장(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 신구대학교 교수)이다.

중학교 시작될 전 회장의 '만해 앞이'는 지금까지도 평생의 숙제다. 행동력까지 겸비했던 그에게 '만해 앞이'는 운동의 형태를 가졌다.

강릉포교당 중고등학생회 시절에는 매년 6월 29일마다 만해 스님 다례제를 주위 사찰의 지원을 받아 봉행했고, 틈나는 대로 법우들과 함께 만해 스님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당시 불교 잡지 <법시>와 신문에다 만해 스님 관련 기고문을 투고해 실리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국어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을 대신해 만해 스님의 시 '알 수 없어요'를 가르칠 정도가 됐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국어책을 받았는데 수록된 첫 작품이 만해 스님의 '알 수 없어요'였습니다. 이 시는 불교적 우주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이 부분까지 설명할 수 없었죠. 수업 첫 시간에 친구들이 '만해 스님 시는 보삼이가 전문'이라고 했고, 선생님은 나와서 설명해 보라고 했지요. 꼬박 1시간 동안 '알 수 없어요'와 만해 스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도 '만해에 대해서는 보삼이 한테 물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한양대에 입학해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만해 스님 알리기와 연구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동 고서적 서점을 들면서 만해 스님의 자료를 찾았고, 만해 스님과 교류했던 선지식 석주, 효당, 청담, 경봉 스님 등을 만나 스님에 대해 묻기도 했다.

선양 원력 발화... 기념관 건립

전 회장의 만해 스님 선양 운동은 사회인이 돼서도 이어졌다. 군역을 마친 그는 한양공고 야간부 교사로 재직했다. 야간부 교사에게 수당이 더 나오기도 했지만, 낮에는 만해사상연구회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 교사가 더 이점이 있었다.

본격적인 선양 운동은 1980년 만해 스님의 마지막 거처인 심우장에 연구회 사무실과 자료관을 만들면서부터다. 당시 심우장에는 일반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었고, 그를 이사시키기위해서는 35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다. 전 회장은 이 돈을 모두 마련해 이주시켰고 심우장을 만해 스님 거처로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00주년 논문집을 발간하고 망우리 묘소를 정비해 비석과 상석을 세운 것도 전 회장이 진행한 일이다.



1981년 심우장 만해기념관 개관식에서 전보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82년 망우리 만해 묘비 제막식에서 경과보고중인 전보삼 회장



전보삼 회장의 원력이 담긴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전경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인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중정 및 충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혹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중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확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중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중정 고승단, 종단 대중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예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전보삼 회장은 ... 1950년 태어난 전보삼 회장은 강릉고를 거쳐 한양대에서 학사와 석사(국민윤리학)를 받았다. 이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화엄의 관점으로 본 만해사상 연구(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만해 스님 신앙 사업에 평생을 매진한 그는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관장 소임을 보고 있다. 이밖에도 신구대학 교수, 철학연구회 중신회원, (재)국외문화재단 이사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사)한국박물관협회장에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용운사상연구>,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등 10여권과 50여 편의 연구 논문이 있다.

스님을 마구나라고 했다"는 한 교수의 주장까지 세상은 바뀌어오며 오해는 줄어들고 있다. "만해 스님에 대한 오해는 모두 <조선불교유신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결혼을 하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은채'와 같이 음성화 되는 불교의 이면이 옳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차라리 뗏목이 결혼을 해 자신의 근기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후자는 '박한영 스님이 만해는 마구나라고 했다'고 말하는 데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조선불교유신론>의 표지에 박한영 스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께 써 놓았습니다. 만해 스님은 이론과 실천, 문수와 보현행원을 모두 지닌 분입니다."

만해 스님의 열정 본받아야 전 회장은 만해 스님이 근현대 한국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면서 만해 스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불교를 알아야 하고 승려로서의 삶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만해 스님의 시 '님의 침묵'에서 '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정작 주목해야 하는 것은 '침묵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는 '침묵의 사자후'를 들여야 합니다. 침묵 안에는 불교의 화엄 사상이 있습니다. 만해 스님이 초지일관 민족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힘은 지식이 아니라 금강과 같은 심지(心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해 스님에게 있어서 문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 본령(本領)과 요체는 불교에 있습니다. 스님은 근대 최고의 선지식이자 사상가요 철학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은 현 세대가 만해 스님에게서 구도의 열정과 실천력을 배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어떤 목표가 생겼다면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로 얻어진 지혜는 사회로 회향해야 합니다. 만해 스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수행을 하고 이를 이타행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성공에 매몰되는는 안됩니다. 고난의 칼날이 서 있는 길이라도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만해 스님의 정의론입니다."



전보삼 회장(사진 가운데)은 만해 스님의 신앙 원력으로 한국박물관협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법일기

10분과 2분의 차이

군법사들은 1년에 세 번씩 전체가 모일 일이 있습니다. 그 때 포살도 하고 교구의 주요안건을 다루거나 어떻게 포교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한번은 공군에 계신 후배법사님이 나를 찾아와 '학생군사학교' 법사님이냐고 물으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일은 많지만 육군 법사가 공군 법사에게 감사인사를 받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인사를 받고 나니 기분은 좋아지더군요.

내용인즉, 공군 법사님이 치통이 있어 부대병원에 갔더랍니다. 법사도 중생이라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병원 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의무대 치과엘 들어갔는데 군의관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스님이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군의관이 앞으로 나와 합장하면서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법당에 온 신자도 아닌데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합장하면서 인사를 하니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 인사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냐고 했더니 학생군사학교 법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자를 양성하는 곳은 누가봐도 군대입니다. 짧게는 5주, 길게는 16주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매주 법회에 참석하게 되면 저절로 신자가 됩니다.

특히 군대는 법사들만 불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도 양성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됩니다. 제가 학생군사학교 법사로 있던 시절, 200명 이상의 군의관 후보생들이 매주 법회에 참석했습니



그림 · 박구원

다. 이들은 이미 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 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급자원들을 모아놓고 법회를 열고 신자화 시킬 수 있는 곳이 또 있을 까요? 이 땅의 청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 불교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포교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고양시에 있는 부대로 옮기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군법사들은 스님이라는 신분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기에 양쪽 규정 모두를 따라야 하는데 민간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임기가 있는 것처럼 군에서는 군법사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6개월마다 부대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전라도 지역에 근무하다 서울 근

저인 경기도로 오게 되었지요. 승합차에 이삿짐을 싣고 부대 위병소로 갔습니다. 전임법사로부터 법당이 부대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위병소 에가서 법당 위치를 물을 요량이었습니다.

"반가워요. 부대 법당이 어디에 있나요?" 제 물음에 위병 근무를 서던 병사는 친절하게 '뒤로 돌아서 우회전해서서 5분 정도를 가면 다른 위병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위병 근무를 서던 병사가 불자였는지, 참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법당이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곤 차를 돌려 우회전을 했습니다. 한 5분 쯤 갔는데 도저히 부대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시 한복판에 들어온 느낌이었을까?

5분이 지나고 10분 정도를 갔습니다. 도저히 부대가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다시 위병소로 돌아오는데 마침 법당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병소 병사가 말한 또 다른 위병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까지는 처음 만난 위병소에서 불교 2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그 병사는 걸어서 5분 거리를 이야기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차로 이동해서 5분을 생각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동

호회 등 활동에서도 때로 자기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불자님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정형 이익수 군승 법사(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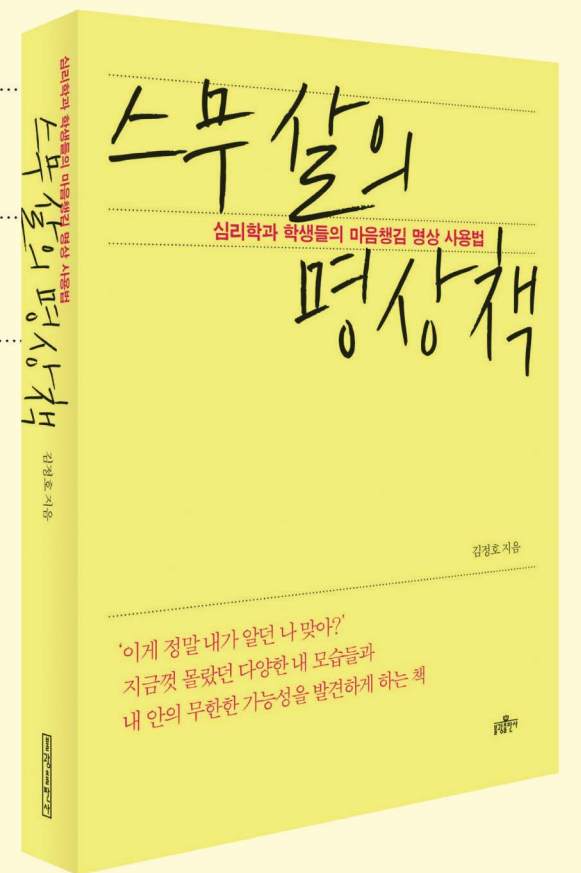


스무살 심리학과 학생들, 명상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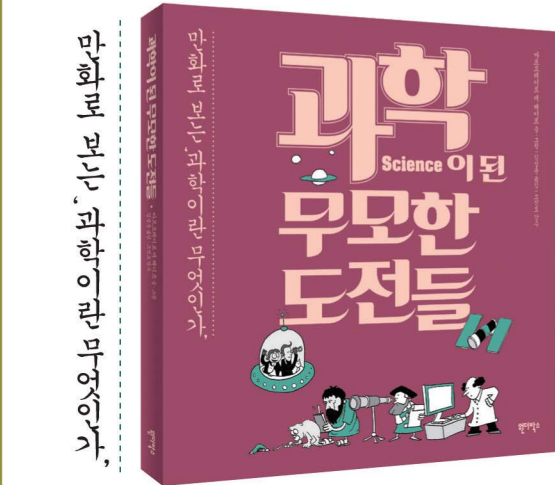
8주 동안 먹고, 공부하고, 명상하며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확 뒤바뀐 심리학과 학생들의 리얼 명상 체험기

명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음챙김 명상 사용설명서

김정호 지음 352쪽 15,000원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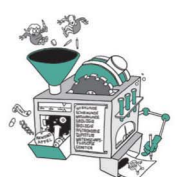
"과학의 모든 분야를 세심한 지도처럼 표현한 백과사전과 같은 책"

과학이 주는 쓴맛(어려움)에 진저리를 내며 과학을 멀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을 펼쳐보라. 쓴맛 뒤에 숨겨진 과학의 목직함(참맛)을 제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은희 하리하라, 과학칼럼니스트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이 선사하는 '진짜' 과학사의 장면을 통해 과학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길 바란다.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과학기술철학) 교수



과학이 된 무모한 도전들 마르코레이트 데 헤이트 글 · 그림 김경훈 옮김 | 조진호 감수 | 192쪽 | 15,000원

"돌직구 같은 철학의 물음들로 삶을 튼실하게 가꾸게 하는 책"

이 책은 특별하다. 저자 자신이 철학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유용함'을 얻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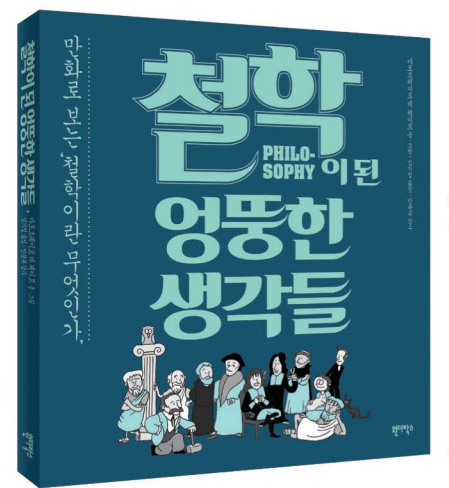
안광복 중등고등학교 철학교사, 철학박사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철학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며, 그 순간 당신도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다.

권희정 상명대부속고 철학교사



철학이 된 엉뚱한 생각들 마르코레이트 데 헤이트 글 · 그림 김기철 옮김 | 안광복 감수 | 124쪽 | 13,000원



마르코레이트 데 헤이트 글 · 그림 김기철 옮김

원티박스는 불광출판사의 인문·교양 브랜드입니다.